



안홍길 (주)에치지코리아 대표이사

## “라벨에서 부는 CTP 바람 라노스가 한 몫할 것”

(주)에치지코리아(대표이사 안홍길, www.hgkorea.kr)는 플렉소 CTP 및 UV CTP를 제작 공급하는 회사다. 안홍길 대표이사는 라벨산업도 오프셋인쇄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품질 향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오프셋인쇄와는 달리 이제서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플렉소 CTP 산업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 공급하는 제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플렉소 CTP와 UV CTP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렉소 CTP의 경우 이전과 다른 신개념 디지털 플렉소 CTP라고 할 수 있습니다. PS판을 비롯해 레터프레스, 플렉소판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CTP입니다. 고품질 디지털 방식으로 1%의 망점까지 재현할 수 있으며, 출력해상도 2540dpi를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라노스 플렉소 CTP는 A3(420×300mm)와 A2(420×600mm) 모델 중에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라노스 플렉소 CTP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사용방법이 쉽고 잔고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노스 플렉소 CTP는 편리한 버튼 방식으로 구성

돼 있는데 그나마 버튼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 버튼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입니다. 작동법이 간단해 누구라도 10분만 교육받으면 바로 장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잔고장이 없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 국내기술로 개발했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맨 처음 플렉소 CTP를 개발한 것은 2012년이었습니다. 키페스2012에 출품했는데,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후 2년 동안 플렉소 CTP 판매에 맞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등 크게 4번에 걸쳐 보완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CE 인증을 받는 등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8월 열린 K-PRINT WEEK에 참가했는데 반응은 어떠했나요?

플렉소 CTP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우선 인쇄인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리고 제품을 소개하고자 지난 8월 열린 K-PRINT WEEK에 참가했는데 많은 인쇄인들이 관심을 가져 오히려 우리쪽에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담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라벨전시회인 시카고라벨전시회를 비롯해 중국 상해와 북경, 방콕, 벨기에, 영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라벨 및 인쇄전시회에 참가해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다양한 해외인쇄전시회에 참가해서인지 우리 회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조금은 특이한 회사입니다. 특히 영국에서 열린 아이펙스전시회 참가 이후 영국 하이츠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기도 했으며,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아 4개팀이 우리 회사를 방문하는 등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 실질적인 판매실적은 어떠한가요?

플렉소 CTP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쇄선진국인 일본에서도 플렉소 CTP를 도입한 곳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UV CTP의 경우 3~4년전만 해도 전체 판매대수가 200여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환경인쇄바람이 불면서 UV CTP 도입이 활발해졌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UV CTP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플렉소 CTP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인쇄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플렉소 시장에서도 CTP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오프셋인쇄와 마찬가지로 라벨인쇄 역시 필름작업을 한번 거치면 망점의 5~7%는 날라가기 때문에 고품질 인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라벨업계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렉소 CTP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노스 플렉소 CTP는 플렉소와 PS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 플렉소 CTP를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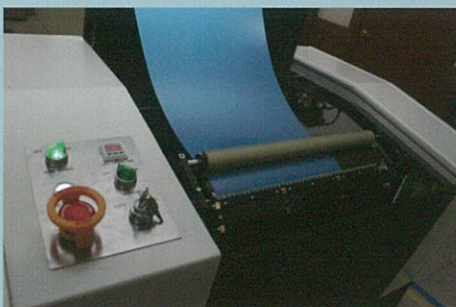
현재 플렉소 CTP는 벨기에의 에스코, 독일의 자이콘을 비롯해 코닥, 스크린, 후지 등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닥, 스크린, 후지의 경우 플렉소 전용 제품이라기보다는 응용제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라벨전용 플렉소 CTP를 공급하는 업체는 에스코와 자이콘 그리고 우리 회사입니다.

###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 에치지코리아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이콘이나 에스코의 경우 9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지만 우리 회사 제품의 경우 7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격대가 가능한 것은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품가격도 저렴하고, 즉각적인 AS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어떤 인쇄사에서 플렉소 CTP를 도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필름출력비로 월 100만원 이상 지출한다면 도입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플렉소 CTP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리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름출력비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운용이 가능하다



필름으로 작업할 경우 망점이 일부 날라가기 때문에 고품질 인쇄를 하기가 어렵다

###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라벨업계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에 대응하는 장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형 플렉소 CTP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형 장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